



제6과 요나

부모님을 위한 안내 (가정활동을 위해서는 다이내믹 영상을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으로 살아났습니다. 이후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 백성이 회개한 것도,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신 것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니느웨에서 일어날 일을 보려고 햇볕을 쬐이며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나에게 박 넝쿨을 예비하여 그늘을 만들어주셨다가 이튿날 새벽에 벌레를 보내 박 넝쿨을 갹아먹어 시들어 죽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요나가 그늘을 만들어준 박 넝쿨을 아낀 것처럼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을 아끼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요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 민족까지 품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욘 4:2)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의 편협한 선민의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뿐 아니라 요나에게도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적하셨으며, 다시 기회를 주시어 선지자의 책임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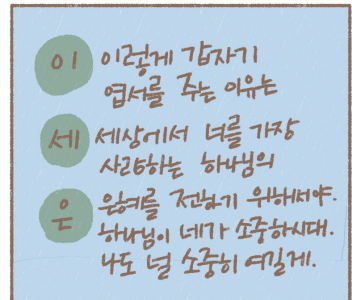
이 과를 통해 자녀들은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타인을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하거나 소외시키는 모습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자녀들을 통해 제한 없이 드러나도록 격려해주세요.

오늘의 활동 - 나도 널 소중히 여길게!

준비물: 엽서, 필기도구

활동하기:

- ① 평소에 잘 대화해보지 못했거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친구 세 명을 떠올린다.
- ② 엽서에 친구의 이름을 적고, 친구 이름으로 삼행시를 짓는다. 이때, 삼행시에는 친구를 소중히 여기겠다는 내용을 담도록 한다.
- ③ 친구에게 엽서를 선물한다.



질문하고 서로 이야기하기

1. 하나님은 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려고 하셨을까?
2.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도 사랑하실까?
3. 좋아하지 않는 친구를 사랑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4. 잘못된 일을 하는 친구를 소중히 여기는 방법은 무엇일까?

* 믿음 나누기 |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했던 경험을 들려주며,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전한다.

찬양과 감사하며 기도하기

♪ 함께 부를 찬송 “우리들 사랑”

